

# 더 건강하고 안전한 공단을 위해

이재영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지회장

“여기는 원래 그래”. 회사에 처음 입사하고 처음 들은 말이다. 옆 공정에서 일하던 A가 전동틀에 손목이 꺾여 조퇴했고 다음날 근무시간에 보이지 않아 “A는 어디갔어요?”라고 물어보자 무덤덤한 표정으로 “짤렸어”라고 옆에 일하던 동료가 말했다. 다치면 해고된다 고? 그때부터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치고 아파도 말하지 않았다. 근태 좋고 성실하고 말 잘 듣고 안다치는 노동자로 살아야 짤리지 않고 오래 다닐 수 있겠구나 싶었다. 주변 동료들에게 정을 주는 것도 어려웠다. 친해지려고 하면 해고되고 바뀌고 가만히 두지 않았다. 지게발에 치여 발목이 부러진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했으나 현장에 나온 감독관들에게 회사 관리자는 “깎치다 그런것”이라며 다친 노동자를 우스꽝스럽게 따라했다.

13년전 이야기이다. 그러나 공단의 현실은 13년 전과 비교해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은 하향평준화되어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몸을 굽아먹으며 잔업과 특근이 많다는 회사로 이직한다. 다쳐도 내가 잘못했거니 하며 인정하고 자비를 털어 치료를 받으며 지난한 노동을 지속한다. 우리 회사도 똑같았고 동료들은 떠나거나 현실을 인정하며 버티고 있었다.

2020년 5월,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을 바꾸고 현장을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이 바뀌야 한다고 요구한 것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켰다. 산재 신청도 그 중 하나였다. 노조 설립 후, 16번의 산재 접수가 있었고 더딘 처리 결과를 기다리며 조합원들은 지쳐갔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요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조합원도 있었고,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다시 요양을 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노조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회사는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고, 작업하는 조합원의 과실로 몰아가고,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다고 하며 징계위를 개최한다는 등의 협박도 일삼았다.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했다. 누군가 쉬면 라인 운영에 지장이 있는 현장 업무의 특성상 눈치도 봐야 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산재=퇴사’가 아닌 충분한 요양을 거친 후, 건강하게 복직하는 모습을 조합원들이 아는 것이 중요했다. 매년 회사가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최대한 현장 친화적으로 편성해 조합원들이 실 권리,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조합원들이 직접 보고, 시도해보고, 나아가 옆 조합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했다.



▲ 조합원 간담회 중인 이재영 지회장. 사진 : 이재영 제공

작년과 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측을 압박,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법정 의무 교육을 노동조합이 주도하게끔 합의했다. 한노보연과 논의를 통해 일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과 조합원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안전보건부는 일터 괴롭힘 예방 교육을 비롯한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해 딱딱한 교육이 아닌 영상을 통해 와닿을 수 있는 교육과 조합원 전체조회나 선거구 조회 시 3분 산안법 등의 내용 전파를 통해 현장 내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합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이렇게 시도하는 것을 넘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과제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흐름을 공단 전체로 넓혀나가는 것이다. ‘다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현장이 개선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1순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과 ‘아프니 쉬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것. 매우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만 공단 내 회사들과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공단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라면 시도해야 하고 외면해서는 안 될 일 아닌가.

5월 1일 노동절, 인천북부지역지회가 설립된다. 현 부평공단지회는 분회로 편제되며 지역지회는 인천 북부의 전후방 제조·서비스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려고 한다. 사업장 단위를 넘어 공단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바라보고 노동자는 노동자가 조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 법의 사각지대 공단을 바꿔내는 것, 함께 올리고 함께 지키고 함께 투쟁하는 것, 가장 금속노조다운 길, 우리가 지역지회를 꼭 해야 할 이유다. 